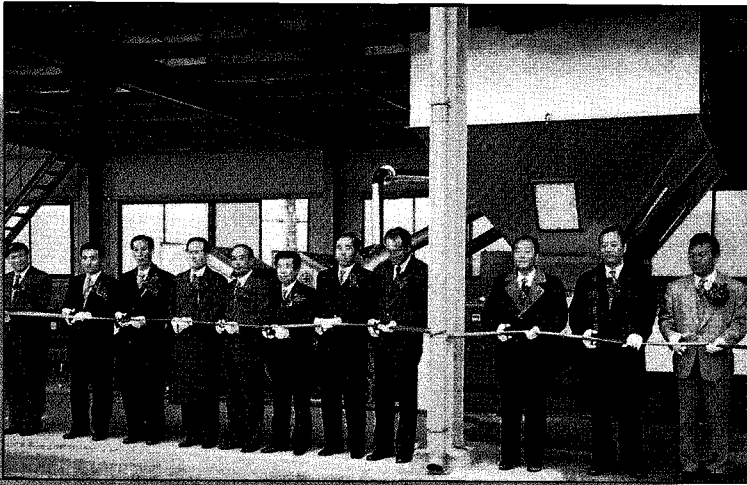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국내 최대의 감용기 본격 가동



▲ 스티로폴 감용기 가동식 테이프 커팅 행사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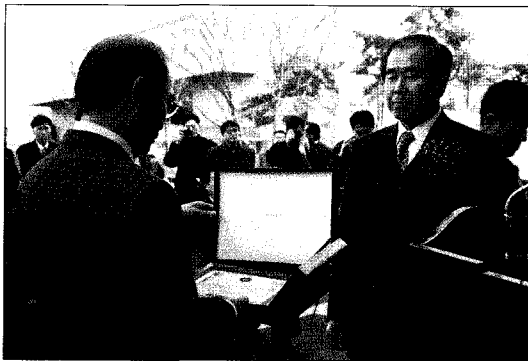
가락시장내 스티로폴 감용설비 가동식 거행

찬바람이 불어도 가락시장에는 먹거리들로 가득하다. 이 먹거리들이 떨어지지 않는 한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또한 스티로폴 포장재이다. 그래서 스티로폴 포장재의 추수는 일년내내 계속 된다. 12월4일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내 스티로폴 감용처리장에서는 이 스티로폴 포장재를 재생처리할 수 있는 현대식 대형 감용설비가 완공되어 가동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안영재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 김성순 송파구청장을 비롯 당 협회 추지석회장,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이주인 총무이사, 강동수산물주식회사 홍중표 대표이사, 강동기업주식회사 박용규 대표이사, (주)경북기계공작소 최병수 대표이사 및 관련기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서울시도매시장관리공사의 기념사 및 추지석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축사에서 추지석회장은 “재활용설비의 준공을 계기로 스티로폴의 재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의 좋은 표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이 감용설비를 운용하게 될 강동기업을 격려했다. 이후 협회는 관리공사에 감용설비를 인계하고 관리공사는 협회에 감사패를 증정하는 순서를 가진 후 테이프 커팅 행사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경북기계공작소에서 설비에 대해 설명 및 시운전을 했다.

이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이 감용설비는 국내 최대 규모로 하루 스티로폴 상자 6만개(시간당 800kg)를 처리할 수 있어 가락시장에서 배출되는 모든 스티로폴 상자를 완벽하게 재생 처리하게 되었다.



▲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는 추지석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 스티로폴 감용설비 가동식 장면

농수산물 포장 스티로폼상자 사용 애로 완전 해결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1일 거래 물량이 약 8천톤에 이르고 있어 수도권 시민 먹거리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국내 최대 시장으로 지난해 가락동 도매시장내에 입하된 농수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는 수산물 1,430만 상자, 농산물 504만 상자 등 약 2천만 상자에 이른다. 포장재별 입하 비율을 보면 수산물 포장의 90% 이상, 포도 포장의 70%, 딸기 포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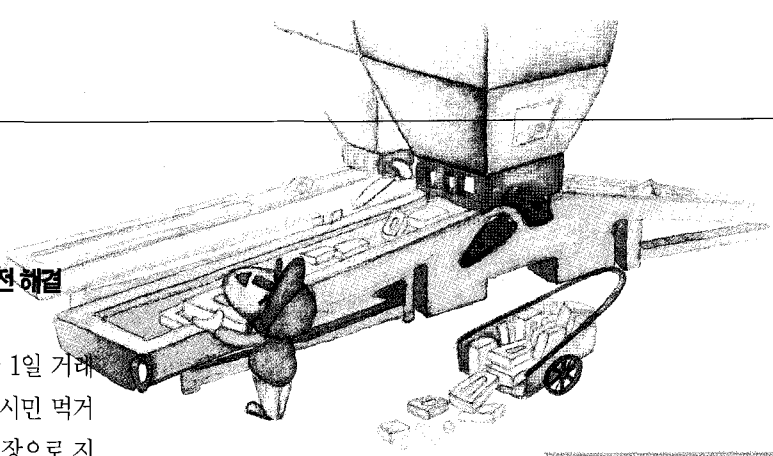
이와 함께 정부의 농수산물 포장화사업 촉진정책, 소비수준의 향상, 핵가족화에 의한 저장성 식품 및 소포장 상품의 선호 추세에 따라 농수산물 포장용 스티로폼 상자의 사용 추세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신선도 유지가 좋고 상자 작업시 포장시간 단축, 상하차의 편리성, 우천시 현장 포장 작업이 가능하여 딸기, 포도 이외에도 고품질의 복숭아, 사과, 배, 오이, 호박, 파, 방울토마토 등의 포장용기로 널리 사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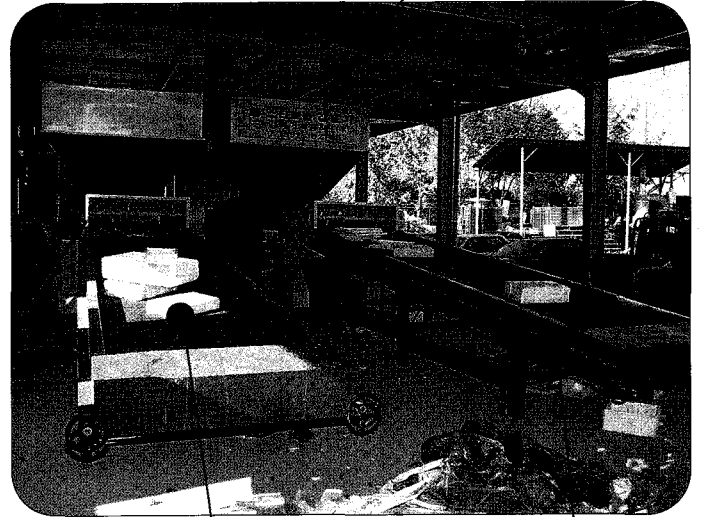
미국, 호주, 일본등 외국의 경우에도 포도, 표고버섯, 복숭아, 사과, 배, 오렌지,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파파야, 앵두, 오이, 고급상추, 호박 등의 포장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스티로폼 상자의 사용 및 사용 용도가 널리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가락시장내 스티로폼 재활용 설비의 현대화로 시장내에서 발생하는 농수산물 포장 스티로폼 전량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폐자원 재활용등 환경보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

특히 이 감용설비의 공정은 이송콘베어-분쇄기-송풍식 이송장치-분쇄품 저장실-전기 압출식 감용기(판형 잉크트로 성형됨)-이송콘베어 등 현대화된 자동설비로 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양질의 재생원료를 생산하여 유상 판매하므로써 연간 예상 매출액은 1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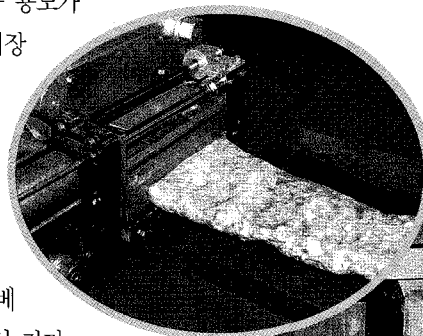


2층에는 60평 규모의 저장실이 있어 분쇄된 스티로폼을 오래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분제거도 돕는다



가락시장에서 배출되는 스티로폼은 98년 기준 연간 약 2천만 상자에 이르고 있다

회수된 스티로폼이 7m 길이와 이송 콘베어에 실려 분쇄기로 들어가고 있다



분쇄된 스티로폼은 150℃에서 가온 압출하여 부피를 50분의 1로 줄이게 되는데 이렇게 생산된 것이 잉크트다. (아래 사진은 15cm 너비의 판형 잉크트)

